

138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5) 땀으로 퇴색된 스웨터

□ 땀으로 퇴색된 스웨터

- 모 100 %의 양상블 카디건과 풀오버(머리부터 뒤집어 쓰며 입는 스웨터)를 동일 로트의 드럼에서 석유계 드라이클리닝 후, 풀오버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퇴색이 되었음.

해설)

- 이 사례에 대해서 겨드랑이 부분의 남색계통 둥근 얼룩에 대해 주목하여 2가지 방법에 의한 비파괴 검사를 하였음.



- ① 컴퓨터에 의한 채도강조 화상처리(사고품의 변·퇴색 상태 확인) 결과, 사진으로부터 본 제품의 색채에는 본래 남색계의 염료가 포함되어 있어 겨드랑이 부분의 남색계의 염료가 어떠한 액체의 영향으로 이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.
- ② 블랙라이트 관찰(겨드랑이에 땀 성분 등 유기물의 잔류여부 확인)로 특정부

분에 현저한 형광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음.

- 이러한 정밀관찰로부터 땀 성분의 잔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, 발생부위 및 형상으로부터 땀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.
- 이상으로부터 문제의 둥근 얼룩은 염색중 남색계 염료의 땀 견뢰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, 같은 드럼에 카디건과 풀오버를 같은 조건하에서 세정처리 했는데, 풀오버만 남색계의 퇴색이 발생한 것은 세탁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탁전 제품의 상태에서 유래된 원인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